부활하신 주님

수요일, 3월 31일, 2021 | 2021년 1분기

이번 주의 교리 공부를 위해 바라보고자 하는 주제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암송 구절: 요 8:36, 롬 6:9

기억 말씀

"And he saith unto them, Be not affrighted: Ye seek Jesus of Nazareth, which was crucified: he is risen; he is not here: behold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막 16:6

"하나님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도다 그가 살아나셨으니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제자들이 그를 찾아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 거기서 뵈리라 하셨다 하라"

"Yet this disciples and Peter that the goeth before you into Galilee: there shall ye see him: All the disciples had fled from Gethsemane, and Peter had followed afar off, and had sat down with the servants of them all. When Mary Magdalene told them she had seen the Lord, she repeated the call to the disciples to go to Galilee. And it is from the message sent to them. After he had ascended to the Father, Jesus appeared to the other women, saying, "All hail. And they came and held him by the feet, and worshipped him. Then saith Jesus unto them, Be not afraid: go tell my brethren that they go into Galilee, and there shall they see me. Matthew 28:10 Mark 16:7 Luke 24:9-11

그 제자들과 베드로가 겟세마네를 떠나 도망쳤으며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가 그들 모두의 곁에 앉아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을 되풀이하셨다. 그가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하시니 그들이 나아와 예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여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 28:10 막 16:7 눅 24:9-11

"Christ's first work on earth after his resurrection was to convince his disciples of his unidentical love and tender regard for them. To give them proof that he was their living Saviour, that he had broken the fetters of the tomb, and could no longer be held by the enemy of God and man, he met them in person. He did not go to the Father to receive the assurance of his Father. He appeared to them again and again. He would show the tombs of one still closer around them. Go tell my brethren, he said, that they meet me in Galilee." Dr 74.5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하신 첫 일은 제자들에게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그가 살아 있는 구주이시며 무덤의 결박을 끊으셨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에게 붙들릴 수 없으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아버지에게 확신을 받으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는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는 그들 주위에 무덤이 점점 더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다." Dr 74.5

부활 교리 공부

Rejoicing in the Resurrection

부활을 기뻐함

Read Mark 15:42-16:6. What happened here, and why is this story so relevant to the resurrection?

마가복음 15:42-16:6 읽으세요. 여기 무엇이 일어났나요? 왜 이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와 많은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세요?

"The Sabbath was past, and Mary Magdalene came early in the morning when it was yet dark, unto the sepulchre, and the women were with her.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had prepared spices and ointments, that they might come and anoint him. The women were greatly terrified, and hurried their faces in the earth, for the sight of the angels was more than they could endure. Mary Magdalene was the first to arrive at the sepulchre, and she hastened back to inform the other women of what she had seen. The women trembled with awe. The angels said, "Fear not for I know ye seek Jesus which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the Lord lay. Matt 28:1 Mark 16:1-6 Luke 23:55, 56; 24:1, 10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새벽 동틀 때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자 하였더라 여자들이 매우 놀랍고 두려워 그 얼굴을 땅에 숙이었으니 천사들의 광채를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고 다른 여자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돌아갔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천사들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알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주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 28:1 막 16:1-6 눅 23:55, 56; 24:1, 10

Read Colossians 2:10-12. What is the New Testament meaning of Jesus' resurrection?

골로새서 2:10-12을 읽으세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Christ rested in the tomb on the Sabbath day, and when holy beings of both heaven and earth witnessed the joy with which he was received by his Father,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Jesus was the work of teaching His disciples. But this fact does not consecrate the first day of the week, and make it a sacred day of the Lord. It was the resurrection of Christ from the tomb, which was the work and spiling of His blood for the sins of the world, in the ordinance of the Lord's Supper, saying, "For as often as y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e do sho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1 Cor 11:26

의 복소리가 퍼져 나갔다. 그때 그들은 두 명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무엇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두렵고, 이미 사람들은 그들의 상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두 줄기 태양에 맞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눈이 아연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아무도 말을 두드리지 않았다. 말자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경탄 불어서 우주 웃지지 공공해졌다. 그때 그들은 다음 이상 소리를 들었다. 그때 그들은 다음 이상 소리를 들었다. 그분의 입술에서 "스데파에 명령 받기 있었지어"가 는 것을 보았다. 본명하고 본명한 말씀이 말씀하다.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 and ever, and I have the keys of death and Hades. Write what you have seen, what is and what will be after this. 802.2

"But they were terrified and affrighted, and supposed that they had seen a spirit. And He said unto them, Why are ye troubled? and why do thoughts arise in your hearts? Behold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handle Me, and see; for a spirit hath not flesh and bones, as ye see Me have.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 DA 803.1

"그러나 그들은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여 귀신을 보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였다. 그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고로워하여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는가 내 손과 발을 보라 나 자신이니 내는 나를 만져보고 보라 영은 내게가 있는 것과 같이 살과 뼈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DA 803.1

"When Jesus met with His disciples, He reminded them of the words He had spoken to them before His death, that all things must be fulfilled which were written in the law of Moses, and in the prophets, and in the Psalm concerning Him. "Then opened He their understanding, that they might understand the Scriptures, and said unto them, Thus it is written, and thus it behooved Christ to suffer, and to rise from the dead the third day: and that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should be preached in His name among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And y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DA 804.2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셨으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 때에 그들의 총명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이 전파되어야 하시라고 기록되었으니 곧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 DA 804.2

"The disciples began to realize the nature and extent of their work. They were to proclaim to the world the wonderful truths which Christ had entrusted to them. The events of His life,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e prophecies that pointed to these events, the sacredness of the law of God, the importance of the plan of salvation, the power of Jesus to forgive sins, the mission of one, — all these things they were witnesses, and they were to make them known to the world. They were to proclaim the gospel of peace and salvation through repentance and the power of the Savior." DA. 805.1

"제자들은 자신들의 임무의 본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놀라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들을 가리키는 예언,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거룩함, 죄 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그들은 증인이었고,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권능을 통해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DA 805.1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th unto them, Receive ye the Holy Ghost: Whosoever sins ye remit, they are remitted unto them; and whosoever sins ye retain, they are retained." The Holy Spirit was now given for a special purpose. Before the disciples could go forth on their official business, they need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romised by the Lord Jesus. He was committing to them a most sacred trust, and He desired to impress them with the fact that without the Holy Spirit this work could not be accomplished." DA 805.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죄를 보류하면 보류하리라"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교회의 관리하여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신뢰를 맡기고 있었고, 성령이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DA 805.2

9월 27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The night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had worn slowly away. The darkest hour, just before daybreak, had come. Christ was still a prisoner in His narrow tomb. The priests and rulers were in its place; the Roman seal was unbroken; the Roman guards were keeping their watch. And there were unseen watchers. Hosts of evil angels were gathered about the place. Had it been possible, the prince of darkness with his apostate army would have kept forever sealed the tomb that held the Son of God. But a heavenly host surrounded the sepulchre, to keep safe the trust committed to Christ, — a trust which was to be delivered forth to all the world. 주의 첫 날의 밤이 서서히 지쳐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돌문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큰 돌은 그 자리에 있었고, 로마의 봉인은 깨지지 않았으며, 로마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탄 공주 군대와 함께 배교한 왕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묻혀 있는 무덤을 영원히 봉인한 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리가 무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힘을 가진 천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신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DA 779.1

"Hosts of angels were present to see the power of your guard? Brave soldiers that have never been afraid of human power are now as captives taken without sword or spear. The face they look upon is not the face of a human being. It is the face of the emperor of the Lord's host. This messenger is he who fills the prisons from which Satan fell. It is he who on the hills of Bethlehem proclaimed Christ's birth. The earth trembles at his approach, the hosts of darkness flee, and as he rolls away the stone, heaven seems to come down to the earth. The soldiers see him removing the stone, and they hold back paralyzed with fear.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calling to Father calls Thee. We see Jesus come forth from the grave, and hear Him proclaim over the rent sepulc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s He comes forth in majesty and glory, the angel host bow low in adoration before the Redeemer, and welcome Him with songs of praise." DA 779.3

"어떤 사람이 혼자 있어서, 광야에서 힘센 어떤 고요한 시간이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던 용감한 병사들이 이제 칼도 창도 없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얼굴은 일반의 천사의 얼굴이 아니다. 주님의 군대 황제의 얼굴이다. 이 메신저는 사탄이 추방된 감옥을 채우는 분이다. 베들레헴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가 다가오자 땅이 떨고 있고 어둠의 무리가 도망치고 그가 돌을 굴리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 병사들은 예수께서 돌을 돌려놓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마비되어 나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무덤을 향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위엄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들었으니 주께서 사면과 화합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의 노래로 그를 맞이하였다." DA 779.3

"이에 나타나 계시되어 여러, 광야에서 힘센 어디로 갔느냐?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던 용감한 병사들이 이제 칼도 창도 없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얼굴은 일반의 천사의 얼굴이 아니다. 주님의 하늘도 황제 군대의 얼굴이다. "땅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오두막처럼 흔들리고 그분은 밖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개처럼 우레가 울리는 가운데 장엄하게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시고 일어나셨을 때, 그분은 "만약 주님께 지켜보지 않고 서 계셨던 분, 천만에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셨는데 거기 천 계시장을 통치자들이 "그는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도록 명하셨다. 그분의 두려움 위에 선다 이 위에 놓여 계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포로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분의 두려 위에 선다 이 위에 놓여 있어도 그리스도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DA 780.3

"At sight of the angels and the glorified Saviour the Roman guard had fainted and become as dead men. When the heavenly train was hidden from their view, they arose to their feet, and as quickly as their trembling limbs could carry them, they ran from the place of the sepulcher. Staggering like drunken men, they hurried on to the city, telling those whom they met the wonderful news. They were making their way to Pilate, but their report had been carried to the Jewish authorities, and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sent for them to be brought into their presence. A strange appearance these soldiers presented. Trembling with fear, their faces colorless, they bore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The soldiers told all, just as they had seen it; they had not had time to think or speak anything but the truth. With painful utterance Jesus was, it was the voice of God who was crucified; we have heard an angel proclaiming Him as the Majesty of heaven, the King of glory." DA 781.1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본 로마 근위병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기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발 위에 일어나 일어나 놀라운 지진처럼 지쳤을 수 있는 한 빨리 동굴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서둘러 도시로 향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는 중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유대 당국에 전달되었고, 대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은 그들을 만나 그들의 면전으로 데려오라고 보냈습니다. 병사들의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얼굴이 무색해진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증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이 본 그대로, 진실 외에는 다른 생각이나 말을 할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천사가 그분을 하늘의 위엄과 영광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A 781.1

"The faces of the priests were as those of the dead. Caiaphas tried to speak. His lips moved, but they utterance no sound. The soldiers were about to leave the council room, when a voice stayed them. Caiaphas had at last found speech. Wait, wait, he said, for there is one thing you have to see." DA 781.2

"제사장들의 얼굴은 죽은 것처럼 굳어졌다. 가야바는 말하려고 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군인들이 회의실을 떠나려고 할 때, 한 음성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가야바는 마침내 말을 하게 되었다. 잠깐, 그가 말했다,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DA 781.2

"A lying report was then given to the soldiers. 'Say ye,' said the priests, "His disciples came by night, and stole Him away while we slept.' Here the guard was overreached themselves. How could the soldiers say that the disciples had stolen the body while they slept? If they were asleep, how could they know? And if the disciples had been proved guilty of stealing Christ's body, would not the priests have been first to condemn them? Or if the sentinels had slept at the tomb, would not the priests have been foremost in condemning them to Pilate?" DA 781.3

"그때 날조하여 거짓 보고가 내려졌다.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그분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것을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과대 포장했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혐의로 유죄로 판명되었다면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파수꾼들이 무덤에서 잠들었다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들을 정죄하는 데 가장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DA 782.3

"The soldiers were horrified at the thought of bringing upon themselves the charge of sleeping at their post. This was an offense punishable with death. Though they bear false witness, deceiving the people, and placing their own lives in peril? Had they not kept their weary watch with sleepless vigilance? How could they stand the trial, even for the sake of their very preferment themselves?" DA 782.1

"병사들은 자신들이 잠들어 있는 혐의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였다.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사기치고 사기치는 스스로를 과대 포장했을까. 군인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혐의로 유죄로 판명되었다면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파수꾼들이 무덤에서 잠들었다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들을 정죄하는 데 가장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DA 782.3

"Meanwhile the report of Christ's resurrection had been carried to Pilate. Though Pilate was responsible for having given Christ up to die, he had been comparatively unconcerned. While he had condemned the Saviour unwillingly, and with a feeling of pity, he had felt no real compunction until now. In terror he now shut himself within his house, determined to see no one. But the priests made their way into his presence, told the story which they had invented, and urged that he carry out the sentiment which they had put into his mouth, that the disciples had privately questioned the guard. They, fearing for their own safety, dared not conceal anything, and Pilate drew from them an account of all that had taken place. He had not intended to murder the matter further, but from that time there was no peace for him." DA 782.2

"한편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보고는 빌라도에게 전달되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준 데 대한 책임이 있지만, 비교적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마지못해,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죄하였지, 지금까지는 진정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들고 빌라도의 면전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초들이 밤중에 제자들을 몰래 훔쳐갔다는 그 개념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여 감히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빌라도는 그들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는 살해를 더 이상 가지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그에게 평화는 없었습니다." DA 782.3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연제트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60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